

## 전세계적 위기의 때, 기도 통해 선한 길 열리길



제 10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17일 오전 7시 20분에 은혜한교회에서 거행됐다. ©기독일보

제 10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17일 오전 7시 20분에 은혜한교회에서 거행됐다.

OC교협, OC장로회, OC목사회, OC한인여성목사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2. 기관 단체장 및 정치와 선거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환영사를 한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는 “미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더욱 교회되어서 이 시대와 지역 사회를 섬겨야 한다. 또한 이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OC교협 회장 박재만 목사(미래클포인트

교회)는 “올해 10차 조찬기도회는 ‘자녀보호 주민발의안’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리 심대들이 부모 동의 없이 스스로 성을 바꿀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7학년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학생 참가는 불허되고,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시도 전에 반드시 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면서 “이 주민 발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교회도 울타리를 넘어 커뮤니티에 울림을 주어야 한다. 이 발의안 서명에 모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OC교협 증명회장은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매일이 마냥 밝지만은 않기에 기도가 절실한 이때 OC지역에 단체장들과 교계 리더십들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

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큰 은혜이다”라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를 열쇠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미셸스틸 박(45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정치인들은 이런 격려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영향을 받아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비 선거가 곧 열리는데, 한분 한분이 투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격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영김(40지구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며 “기도

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내려서 선한 길을 열어 나가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강순영 목사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해서 많은 서명을 받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다’란 제목으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설교를 했다. 축사에서는 김영완 LA 총영사, 조봉남 장로(OC한인회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Erin Friday 변호사(CA자녀지킴이 주민청원서명 공동발의자)가 특별 연설을 했다.

문의: 323-578-7933 주민발의안 청원서서명 운동본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토마스 맵 기자

## 지난해 나이지리아서 살해된 기독교인 8천명 육박

2023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최소 8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으며, 폭력 사태로 인해 교회 500여 곳이 파괴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번 주, 나이지리아 아남브라에 본부를 둔 ‘시민 자유와 법치를 위한 국제사회(Intersociety)’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 까지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최소 8222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인터소사이어티는 급진적인 풀라니 목동, 보코하람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

을 대량학살의 주범으로 지목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나이지리아 보안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베누에, 플라토, 카두나, 니제르와 같은 주들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납치되고, 수백 개의 교회가 파괴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이 단체는 보고했다.

인터소사이어티는 “기만적이고 위장된 ‘내부 군사 작전’을 통해, 풀라니 지하드주의자들이 군사적 보호를 받으며 남부 및 중부 지역의 농지, 수풀, 숲을 침공했다”고 전했다.

다. 또한 “현재, 풀라니 목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활동은 남부, 중부 및 북부의 다른 기독교 지역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군사 또는 다른 안보 부대 근처에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 사망자 수는 베누에 주가 14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토 주가 1400명, 카두나와 니제르 주에서도 각각 822명과 730명이 사망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84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납치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만 500개의 나이지리아 교회가 테러를 당했으며, 2009년 이후

총 1만 85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만 나이지리아에서 70명의 기독교 성직자들이 납치되었고, 이 중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공격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2023년에는 300개 이상의 기독교 공동체가 약탈당했다. 특히 베누에 주에서는 수백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2024년 1월에만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최소 200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50명 이상이 플라토 주에서 사망했다.

김유진 기자  
 →1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Miju Holy City Movement  
 Whole churches unite to spread whole gospels to whole city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기도회**

일시: 2024. 3. 3(주일) 오후 6시  
 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본당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주관: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 2024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참가자 모집

세계창조선교회(회장 박창성 목사, WCM)가 오는 6월과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그랜드캐년을 비롯해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등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된 창조와 인류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자연에 남긴 흔적과 증거들을 직접 관찰하는 여행이다.

창조과학 전문 사역자인 박창성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이번 탐사 여행은 앤델로프 캐년과 Horseshoe Bend, 세도나 Powell 호수 등도 돌아보며 진화론적 관점에서 가르쳐 온 지구의 역사를 바로 잡고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밝힌다. 탐사 여행을 인도하는 박창성 목사는 "창조와 노아 홍수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해석을



박창성 목사와 함께하는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계 창조선교회

함으로 의심받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과학과 역사에 관계된 내용을 비롯해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창성 목사는 "그랜드 캐년을 비롯한 브라이스, 자이언, 앤델로프 캐년은 노아 홍수의 흔적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며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목격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 관광보다 훨씬 흥미롭고 유익한 과학지식을 배우며, 성

경적 진리를 확신케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회와 단체들의 수련회로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참가비는 1천 125달러로 숙박 비용과 방문지 입장료, 강사비용과 여행 경비가 포함됐다. 이민선 기자 문의: 503-330-2981(미국), 010-9985-0532(한국), www.wcmweb.org 탐사여행 인도자 (박창성 목사) 약력 세계 창조선교회(WCM) 회장 (전) 명지대학교, 아세아연합 신학대학 객원교수

Western Seminary 선교학 박사 Western Seminary 전문 목회학 석사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ICR) 과학교육학 석사

서울대 지구과학과 졸업 한국 창조과학회 명예이사, 한국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 연구소 학술위원 CBS, CTS TV 특강 강사

## 이용결 목사,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용결 목사(데모데목회훈련원 원장) ©Bethel Church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이용결 목사(데모데목회훈련원 원장)를 초청해 춘계 부흥회를 개최했다.

18일(주일) 오전 9시 2부 예배에서 이 목사는 <바른 삶>(창세기 47장 1~12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남은 생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했다.

"성경은 우리 삶을 잠시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윗은 삶과 죽음의 간격을 한 발자국이라고 말한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호흡이 끊어져서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고 했다. 모세는 다른 것은 자량이 되어 오래 산 것이 자량이 못 되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생애를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했다. 선령자의

이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뒤돌아보면 어쩌다 이렇게 세월만 보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는 성공적 후반전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요셉은 애굽에서 목축업이 천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직하게 그것을 밝힌다.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했다.

두 번째로 그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며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10)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말'은 '작품이라는 말'이라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작품이다. 많은 것은 상품이고, 상품은 시간이 가면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이기에 명품 가방, 명품 옷 필요없다. 어거스틴은,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감탄을 잃어버렸는가'라고 물었다며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이용결 목사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곱이 두 번이나 바로를 축복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복을 빌어 주라고 하신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온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입관 예배를 주관했다. 그때 저는 시신을 만져야 하고 임종을 지켜 봐야 했다. 어느 분이 아프다고 하면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마지막 가는 길에 환하게 웃고 찬송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인상을 쓰신다. 무엇 때문인지 궁금했다. 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는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한다.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다 청산하고 다 털고 가야 한다."

주디한 기자

## 원하트미니스트리, 2월 27일 화요 찬양 첫모임

원하트미니스트리 화요 찬양 모임(이하 원하트 화찬)이 2월 말부터 시작된다.

화요찬양모임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 예배자들을 위하여 원하트에서 제공하는 주중 열린 예배이다. 초교파 모임이기에 찬양을 사모하는 예배자라면 연령과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고단한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갈급한 청년 예배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적셔줄 단비와 같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하트의 예배는, 자연스러운 예배의 흐름을 추구함으로써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찬양과 기도에만 집중하도록 돕는다.

2024년 첫 화찬은 2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원하트 스튜디오 (13913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원하트는 서로의 기도제목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교회와 교파를 초월한 진정한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화찬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원하트 화찬은 지난 해까지 매주 OC에서만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1회 LA 지역에서도



원하트미니스트리가 올해부터는 LA 지역에서도 화찬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찬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원하트와 함께 화찬을 섬겨 줄 장소를 찾고 있다.

또한, 원하트는 화요 찬양사역을 함께 감당할 찬양을 사모하고 재능 있는 멤버들을 모집한다.

한편, 원하트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청년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를 연다. 대상은 모든 청년들로, 교회의 청년 공동체부터 수련회 개최가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강의가 제공되며 삶을 예배로, 예배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문의: 213. 347. 5080(김혜지 간사), myoneheartministry@gmail.com

#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긴다”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는 17일~18일(토, 주일)에 황성은 목사(오메가 교회)를 초청해 부흥 집회를 개최했다. © ggc.org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는 2월 17일~18일(토, 주일) 양일에 걸쳐 황성은 목사(오메가 처치)를 초청해 <교회는 이긴다>(마 16:13-20)는 주제로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황 목사는 2월 17일 오후 7시 30분, 주일 1부, 2부, 3부에 걸쳐 <교회는 이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신본주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18일 주일 오후 1시 3부 예배에서 황 목사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 전했다.

그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는데 현실에는 ‘지는 교회’와 ‘이기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가 이기는 교회인가? 1. 말씀을 붙들고, 2. 부르짖어 기도하며, 3.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 정립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기도할 때,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정립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 기도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말씀 마 6:33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8년 정도 전부터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연구해 오고 있다. 해외 집회가 있으면, 녹음해서 교회에 보내준다. 저희 교회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루 한 장을 공부한다. 20분 정도 녹음해서 셀리더에게 보내주고, 전 성도들이 메모한다. 해외집회를 다니면서 바쁜 중에도 녹음한다. 차에서, 비행기에서 녹음하고, 아파도, 기분이 안 좋아도 8년 동안 매일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들어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관계없이 산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등을 돌리기도 한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2년 만에 등을 돌렸다. 사무엘이 멘토링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성적인 것을 컨트롤하지 못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망가진 인생이 되기도 한다.”

그는 다윗에 대해, “하나님을 그에게 집중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가 이스라엘 왕과 모든 군대가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골리앗의 목을 쳐 영적인 흐름과 공기를 바꿨다. 그는 게임 체인저였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아멜렉에게 가서 미치광이 흉내

를 내며 생명을 연장하며, 20대 전체 1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 광야는 연단의 기간을 상징하며, 연단의 기간은 인내로만 통과할 수 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3가지 연단이 필요하다. 재정의 연단, 관계의 연단, 비전의 연단-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큰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마다 연단에 집어넣으신다. 연단의 시간은 인내로만 통과할 수 있다. 저는 20대가 아주 비극적이었다. 목사 아들이었는데 거룩하지도 못하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다. 애매한 상태였다. 어떤 비전도 소망도 없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했다. 아무 준비도 안된 느낌,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줬다. 다윗은 20대 전체 1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 광야는 인내해야 한다.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 연단,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더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는 것이 목적이다.”

“몇 차례 다윗에게는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에 해하지 않았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계를 가져온다.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미갈은 법계를 들어오며 뛰며 기뻐했던 다윗을 조롱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체면문화가 들어와 있다. 그러나 예배는 함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정의의 예배는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이다. 다윗은 법계가 들어올 때 뛰면서 예배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조롱하는 미갈의 영이 파쇄되어야 한다.”

황 목사는 1년 365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다윗이 장막을 만들었다며, “다윗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스라엘을 뒀다. 288명의 레위인을 셋팅해서 1년 365일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서포팅했고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수만명을 37년 동안 서포팅한다.”고 했다.

이어서 인도 선교 영상을 상영한 후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눴다. “한국 청년 60명과 인도의 청년들이 함께 전도를 나갔다.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켜 직업교육을 시키는 곳에 갔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 많이 묵상했다. 100루피(1500원)에 성이 판매되고 있다. 다시 물어 보니 50~100루피라고 얘기한다. 스타벅스 한 잔이 400루피이다. 75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성이 팔린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공평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을 본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콜카타 여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연구해서 직업 교육 연구소를 콜카타 시와 조직적으로 연대해서 세운 것이다. 그들은 아침 30분씩 큐티로 시작하고, 금요일에는 지역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정기 예배를 드린다. 지금도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키고 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내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과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성경적 세계관으로 옮겨지길 원하신다. 낙심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는 청년들을 향해 ‘오늘부터 죄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말씀에 붙들려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길 촉구하며 기도를 이끌었다. 주디 한 기자

## 한기부 LA지부 ‘설교 및 교회 행정학 세미나’ 3월 4일

멜리데교회에서 목회의 기반이 되는 ‘설교 및 교회 행정학’을 주제로 세미나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이하 한기부,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상임회장 진건호 목사) 주최로 열리는 이 세미나의 대상자는 목회자 및 전도사이며, 한기부 이사장 송일현 목사와 고귀남 목사가 각각 강사로 나서서 30여분씩 강의를 하게 된다.

고귀남 목사는 “실천신학과 행정학 측면에서 설교학 강의를 하려 한다”며 “교회에서 재정 관리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모습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보고 느낀 목회를 있는 나누고 싶다”라고 했다. 강단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

교를 할때 가장 자신있는 설교를 하겠지만, 그 교회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은사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조직 신학 설교를 하면 맞지 않다고 귀띔했다.

고귀남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인데, 다른 설교자의 강해 주석, 인터넷 정보 등을 짜집기를 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목사님들에게 한계점이 온다”라면서 “교인들이 은혜를 입도록 성경을 성경대로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식사 제공의 문제로 3월 2일까지 세미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마스 맵 기자

문의: 310-706-7721(진건호 목사), 213-820-0003(고귀남 목사)



고귀남 목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 대표회장, 멜리데교회) .©기독일보

**초긴급!!!**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발의안 상정을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California의 악법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 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주민 발의안이 통과 되면?**

- 안전:**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사위실/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함
- 공평:** 7학년부턴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 학부모 권리 보호:**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 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금지**
-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 550,000개**
-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 **70,000개 이상**의 싸인
- 한인 서명 마감: 2024년 4월 13일
- 서명용지 및 설명서 보급장소
- OC:**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사우스베이: 토렌스 조은교회
- LA:**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LA 동부: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서명에 관한 안내나 서명용지를 받기 원하시면 서명운동본부( 310-995-3936, 323-578-7933)나 TVNEXT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서명운동본부**

**고문:** 송정명, 김영길, 한기형, 최학량, 최홍주, 민종기, 김인식 (이상 목사)

**대표대화장:** 한기홍

**공동대화장:** 강준민, 고승희, 고창현, 고태형, 고현중, 구봉주, 국윤권, 권혁민,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중규, 김준식, 김지훈, 김태형, 김한오, 김호용, 남강식, 남성수, 노창수, 민경영, 박규성, 박성규, 박성근, 박용덕, 박은성, 박현성, 박상용, 백정우, 손창민, 송병주, 신동철, 신승훈, 신원규, 안 환, 오명찬, 우영화, 윤대혁, 이 서, 이영선, 이정현, 이종용, 임성진, 주혁로, 지용덕, 진유철, 최성광, 최 혁, 최형규

**각지역 대표:** 최영봉, 박재만, 이필성, 오기현, 박선호, 김우준, 전지승, 류수열, 김형길

**지도위원:** 남가주지역 모든 담임목사

**자문위원:** 김태오, 새라 김 (TVNEXT 대표, 408-309-4084)

**실행위원장:** 강순영 (310-995-3936), 심상은 (714-722-4805)

**사무총장:** 강태광 (323-578-7933)

■ 건강한 사역자와 사역지를 찾아서4

# “사역자로 살아온 인생, 행복한 삶이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정명 목사는 남가주지역 교계 원로다. 현재 활동하는 원로다. 송정명 목사는 다양한 사역 경험을 했다. 동양선교교회 전도사로 시작하여,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수석 부목을 거쳐 미주평안교회(담임목사), 복음방송사(사장), 월드미션 대학교(총장)를 거쳐서 현재 사역에 이르렀다.

송정명 목사는 신학교 입학 후 한국에서 한 교회(신수동성결교회), 미국에서 두 교회를 섬겼다. 미국에서 동양선교교회와 미주평안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만만치 않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과 선 후배 목회자들의 큰 사랑을 입은 날들이었다.

송정명 목사가 현재 섬기는 성시화 운동은 16세기에 시작된 신앙 운동이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John Calvin)이 타락한 도시였던 제네바시에 지도 목사가 되면서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칼빈은 모든 시민이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게 하여 거룩한 도시를 세울 것을 천명하고 전개한 운동이다. 칼빈 거룩한 도시 만들기 운동은 주효했다. 제네바가 거룩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 영국 존 녹스(John Knox)는 제네바를 “천국의 도시”라며 경탄하였고, 얼마 전까지 UN 공식 자료에 제네바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등재되었다. 칼빈과 그리스도인들의 성시화 운동의 강력한 영향력이다.

제네바를 모델로 한 성시화운동이 1972년 8월에 한국 춘천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CCC) 김준곤 목사는 제네바와 유사한 조건을 가졌던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도전했다. 미주성시화운동은 2002년 2월에 미주성시화 본부가 설치되었고(초대회장 박희민 목사), 현재는 진유철 목사(나성 순복음교회)와 더불어 송정명 목사가 공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송정명 목사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역을 온 힘을 다해 섬긴다. 모



송정명 목사가 섬기는 미주성시화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빈이 전개한 거룩한 도시를 세우는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제네바는 칼빈에 의해 개혁되면서 성경을 시민들의 생활의 표준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방송국 성우 출신, 동양선교교회 중고등부 교역자, 부목사, 수석 부목사 거쳐 미주평안교회 담임, 복음방송사 사장, 월드미션대 총장 거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SAM 선교회, 미기총에서 활동**

든 사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무너지는 미국 사회를 보며 성시화 운동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사역에 동역하는 교회와 공동회장단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이사진과 동역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다.

**성시화 운동본부 활동**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는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주관하는 등 지역의 기도운동을 도모한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매년 겨울 방학에 청소년 수련회를 후원한다. 아울러 수시로 세계 재난지역 돕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2024년 세계사적, 선교적으로 중요**  
송정명 목사와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2024년을 중요한 해로 본다.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과 국회의 원 선거 등 40여국에 선거가 있는데 세계사적, 선교적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3월 3일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감사로 모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 기도회”를 갖는다.

송정명 목사는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가 안타깝다. 이번 한미 연합기도회나 국가 기도의 날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기도회가 성장하고 기도운동이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송정명 목사는 군대생활 중에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사회생활(부산 MBC 성우 8기)을 시작하면서 삶의 균형이 무너지 방황 아닌 방황을 했다. 이런 상황을 눈치 채 매형(고 조두만목사/신수동교회

담임)의 권유로 성결교 신학교에 입학했다. 별생각 없이 신학교에 입학했던 청년 송정명은 신학교 교장 김웅조 목사가 인도한 개강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헌신했다.

신학교에서 만난 요셉 선교사의 권유로 유학을 준비하던 송정명 전도사는 한 자매를 중매로 만났다.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자매였다. 결혼예배 후 송순애 사모는 먼저 미국으로 떠나고 송 전도사는 대학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을 마무리하고 졸업 후 미국으로 왔다.

이민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아내가 간호사로 일했지만 송 전도사도 일을 해야 했고, 기술도 경험도 없는 송정명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첫 일은 청소였다. 고물 자동차를 타고 동분서주하다

가 만난 자동차 수리센터 사장님 주선으로 동양선교교회(임동선 목사)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다. 송정명 전도사는 특유의 성실로 열심히 섬겼다.

동양선교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로 일하며 송정명 전도사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 먼저는 평생 멘토, 선배, 스승으로 따르게 된 임동선 목사를 만난 것이다. 둘째는 당시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던 김재권 장로를 만났는데 그가 현재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이다. 셋째는 그 당시 학생예배에 출석했던 노창수 학생이 지금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인 노창수 목사다.

안수를 받은 송정명 목사는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다. 임동선 담임목사와 교회의 신임을 받으면서 점점 분주했다. 보람찬 사역에 몰두하던 송 목사는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던 미주 평안교회에 청빙을 받아 24년을 목회하고 원로목사가 되었다. 24년의 세월 가운데 동양선교 교회의 청빙을 수용하고 임지를 옮기려다 회귀한 것은 지난(至難)한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믿는다.

송정명 목사는 사역과 섬김의 기쁨이 오면 몸을 사리지 않는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말은 회피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송정명 목사의 섬김과 사역은 다양하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한인 후원회 회장으로 봉사했고, 북방선교를 담당하는 SAM 선교회 후원 이사장으로 섬겼고, LA 마라톤 날짜 변경위원회 총무와 회장을 맡아 봉사했다.

송 목사는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한다. 목회하는 동안 미주 기독교한인총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을 6년간 지냈고, 3대 미주 복음방송 사장을 지냈다. 2014년부터 고 박희민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한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를 섬기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다. 송 목사는 사역자로 살아온 지나온 인생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자평한다.  
강태광 편집위원(월드쉐어 USA 대표)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준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 30년 함께할 그 이상

Always be with You

메이저리크 코리아 특급 박천호

**SMG 서울메디칼그룹** SEOUL MEDICAL GROUP **애니 문 보험은 서울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 광고에 나오는 인물은 실제 한지는 아니며 단지 광고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건강세미나 2회

가든그로브지역

#수업개배우는건강

# 임유일 내과전문의 건강세미나 고혈압의 모든 것



**세미나소개** 센터메디컬그룹의 2호 직영점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에서 주치의 임유일내과전문의가 들려주는 진짜 **고혈압**에 관한 모든 것!

**참여 및 문의** 선착순 15분 전화로 신청 및 문의 주세요. **714-904-1701**

**세미나대상** 평소 고혈압에 관심 있으신 모든 시니어

**참가비** 무료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세미나정보** 2월 27일 화요일 10:30am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 세시봉 콘서트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 세시봉

2024년 3월 16일 (토) 19시 야마바 극장

### 공연 정보

- ★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 ★ 야마바 극장 (777 San Manuel Blvd S, Highland, CA 92346)

### 티켓 안내

- ★ 무료 입장 (센터메디컬그룹 가입된 환자 only) ★
- ★ 티켓 구매 (센터메디컬그룹 미가입자분들은 야마바 극장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신청 문의

- ★ 선착순이 다 차기 전에 무료 예약 전화 주세요!
- ★ 714-904-1701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 “마지막까지 작은 교회 돕다 가신 김명혁 목사님 신앙 본받자”

故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가 18일 교통사고로 별세한 가운데 고인의 장례일정이 20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에서 시작됐다. 장례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장지는 용인 나래원이다. 김목사는 지난 18일 춘천시 소재 산천무지개교회(담임 윤재선 목사)로 설교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숨졌다.

조문 첫날인 20일 강변교회가 주관하는 위로예배가 있었다. 이날 예배에서 기도한 조해선 장로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러 춘천시 소재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습니다”라고 하자 성도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조 장로가 “김명혁 목사님은 항상 차 트렁크에 초콜릿과 떡을 신고, 작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이들에게는 스티커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들려 보내셨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이날 강변교회 담임 이수환 목사는 살전 5장 16~1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김명혁 원로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구절을 암송하며 제게 전해주셨다. 이 본문은 장례식과 어울리지 않지만 원로목사님의 장례식과는 어울린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원로목사님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슬픔이 있다. 목사님은 항상 사진을 찍으셨을 때 ‘하하 호호’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셨고 그 기쁨을 알려주셨다”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셨다. 예배를 소중히 하셨다. 범사에 감사하셨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흐르고 넘치셨다. 목사님의 감사는 거룩한 감사의 예배이자 헌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로목사님의 헌신은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하시고 그 복음과 구원의 감격에 가득하셨기에 가능했다. 그는 이곳저곳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려 다니셨다”며 “목사님께 배운 대로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



故 김명혁 목사의 빈소에 고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기독교일보

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위로예배 이후 강변교회 성도 김성숙 권사는 “김명혁 목사님은 환한 미소로 언제나 천진만난하게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항상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다”며 “아주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했다.

고인이 생전 마지막 설교를 전하려 했던 곳인 산천무지개교회 담임 윤재선 목사는 “김명혁 목사님은 생전 마지막까지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셨다.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며 “춘천이 성서화의 발원지였고 산천무지개교회가 초교파라는 점에서 그분이 설교하시려 했던 말씀이 의미가 깊다”고 했다.

이어 “바로 ‘회개하라’, ‘기도하라’, ‘기도 중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이다. 김명혁 목사님은 산천무지개교회에서 전하시려 했던 설교를 통해 분열된 한국교회 전체에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전하신 것”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설교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인의 지인들이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았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박형용 박사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마지막까지 주님께 헌

신하셨다.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고 했다. 바울선교회 대표 이동휘 목사는 “성실하셨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고 했다. 강승삼 목사(전 KWMA 회장)는 “좋은 선배 좋은 스승으로서 김명혁 목사님과 좋은 교제를 나눴다”고 했다.

이정의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는 “한국 복음주의계의 거목이신 목사님 한 분을 잃었다. 든든하고 중심을 잡고 어려울 때마다 대안을 제시해주셨다”며 “별을 잃었다. 애잔하고, 아쉽다. 추모한다”고 했다.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는 “김명혁 목사님은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인 모임의 좌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23년 동안 일해오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 주관으로故 김명혁 목사의 전국환송예배가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 ‘하늘의 음성’(요한계시록 14: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한복협 자문위원)는 “1948년 당시 11살이었던 김명혁 목사님은 평양에서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 월남하셨다. 목사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김 목사님 나와 함께 일

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뻐하셨으나 답문을 할 수 없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일 김 목사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다. 이후 큰 딸에게 소천 연락이 왔다. 김 목사는 전심전력으로 사셨다. 목사님은 성경대로 사셨다”며 “김 목사님은 87세로 별세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는 슬픔일 것이나 김 목사님에겐 기쁨일 것”이라며 “왜냐면 천국에서 그림고 그림던 먼저 죽은 아들을 만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순교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을 것이다. 김 목사님은 천국에서 춤을 추실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거기에 위로와 평안이 있다. 우리는 슬픔을 말하지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며 “왜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면서 주안에서 살다, 죽은 이후 주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성령께서 아멘하고 화답하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회고사에서 림인식 목사(노량진교회 원로)는 “김명혁 목사님은 한국의 다니엘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니엘은 10대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니엘은 신앙에 미친 사람이었다”며 “우상의 대제국 바벨론에서 우상숭배를 거절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과거 대한민국도 신앙이 어려웠던 바벨론 같은 상황에 처했고, 김 목사는 10대 시절 신앙의 자유를 위해 월남했다”고 했다.

림 목사는 “다니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선전 김관주 목사는 순교했다. 그 순교신앙을 계승받은 김 목사는 혈혈단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며 “그는 후진들에게 선배 신앙을 본받자고 애타게 부르짖었다. 후배들의 신앙은 선배들에 비해 무능하고, 세속적이다. 김 목사는 옛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대로 산 미친 사람이었다. 김명혁 목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건설을 끊임없이 했다. 후학 양성에 힘쓰며 교육자들의 수준을 높였다”고 했다.

아울러 “김명혁 목사는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를 격정하며 남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애썼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김 목사가 남긴 발자취를 좇아 우리도 최선을 다 하자”고 했다.

김영한 교수(숭실대 기독교대학원 명예)는 “2016년부터 기독교학술원에서 매 학기마다 90분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김명혁 목사님은 막가파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다”며 “그의 기질은 신앙적인 돌파적인 삶을 사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월남을 강행한 신앙”이라며 “이는 김명혁 목사의 삶을 지배하는 원형이었고 교계를 향한 근본적 봉사의 계기였다”고 했다. 그는 “한복협은 김 목사의 희생적인 돌파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는 삶과 신앙이 일치됐기에 존재만으로 위로를 받았고 무보수로 작은 교회를 섬기며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다. 손봉호 교수(서울대 명예)는 “21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먼저 가서 아쉽다. 김 목사처럼 순수한 사람이 없다. 나다니엘처럼 간사함도 없었다. 그런 순수함이 감동이었다”며 “그는 믿음 안에서 담대했다. 김 목사는 총신대 교수 시절 안기부에 붙잡힌 적이 있다. 왜 붙잡혔는지를 묻자 김 목사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내서 그런 것이었다고 했다. 또 당시 총신대 학생들이 주일날 군부대 훈련을 거부했다가 퇴학처리를 받았는데, 김 목사는 ‘학생들이 안식일을 사수했는데 오히려 상을 줘야지’라며 ‘안기부에 항의하겠다’고 했다. 손 교수는 “그 말로 안기부에 붙잡혔다고 한다. 김 목사는 두려움이 없고 순수한 사람이다. 김 목사를 믿음 안에서 담대한 분으로 본받아야 한다”며 “마지막 가는 길까지 미자립교회를 돕다가 숨을 거뒀는데 그분의 신앙을 좇아 살자”고 했다. 노형구 기자

## 〈건국전쟁〉, 美 연방 의회서도 상영 예정

관객수 70만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영될 예정이라고 뉴스메이커USA가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건

국전쟁〉 미국 상영권을 획득한 한미연합회(AKUS: America Korea United Society / 미국회장 김영길, 한국회장 송대성)는 오는 3월 20일 워싱턴 D.C. 소재 연방 의사

당(United States Capitol)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뉴스메이커USA는 이를 위해 한국계 미셀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많은 도움을

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덕영 감독 등이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한미연합회 측은 이를 위해 미국 정치인, 한국전 참전용사 등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현재 미국인들과 1.5, 2세 한인들을 위해 영어 자막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현재 의사당 내 2백 석 규모의 상영관을 확보했지만, 참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4백 석 규모 장소로 교체하려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회는 지난해 김 감독의 또 다른 히트작인 ‘김일성의 아이들’의 뉴저지 상영을 주도하기도 했다. 송경호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귀국자동차 운송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사무실, 공장 이사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미 해외이, 괌, 알라스카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중국, 일본, 남미
- 초저가 차량 운송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2024년 대박



### 100% Made in USA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 ADU 전문

##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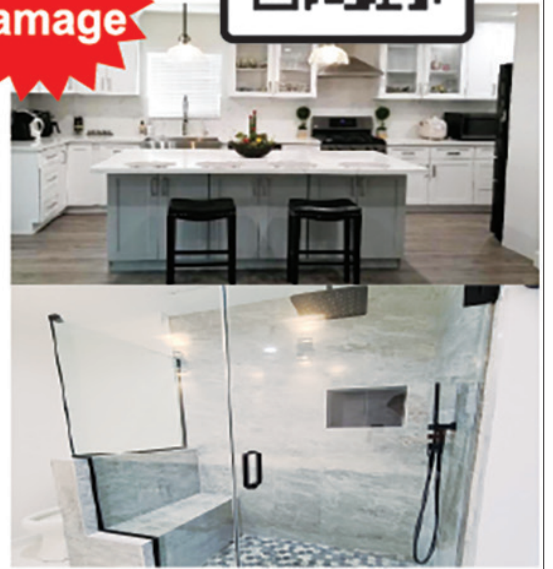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이슬람 난민 유입 이후, 유럽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호(903호) 기사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이슬람의 유럽 침공'에 이어서

## 무슬림 인구 ↑, 테러 위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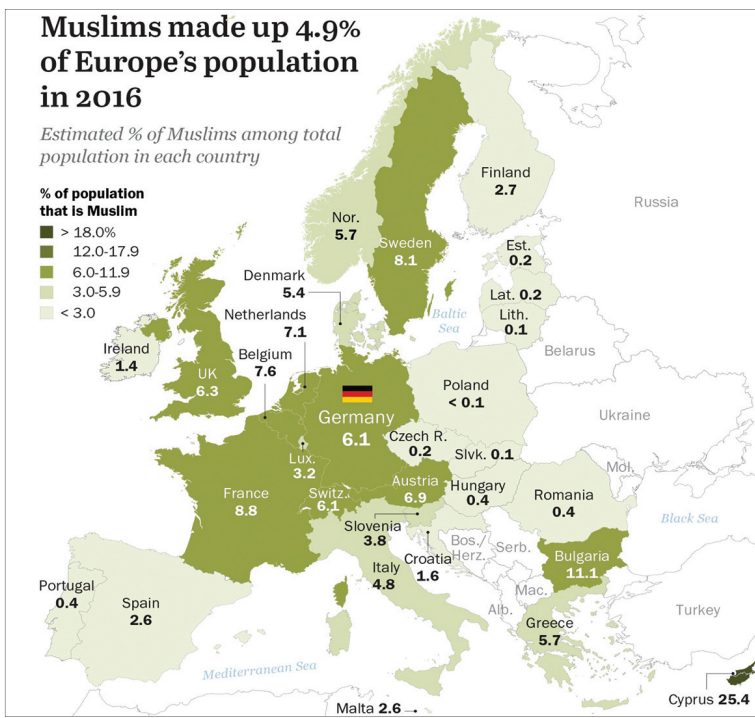
2016년 퓨리서치의 <무슬림 인구 밀도 지도>와 영국에서 발표한 <테러 위험 지도>를 비교해 보면, 무슬림 인구 수가 많은 곳에 테러가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무슬림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은 테러가 없었다. 동유럽은 13세기부터 비셰그라드 그룹(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이 동맹을 맺었다. 이들은 15세기에 오스만 터키로부터 2백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슬림을 철저히 막았다. 한 예로, 2015년 유럽 연합에서 각 국에 난민을 할당했는데, 그때 헝가리에서는 반소로스 법안(헝가리 반난민법, '스톱 소로스' Stop Soros, 헝가리 출신 미국의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난민을 위해 헝가리에 종합 대학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86% 빅토르 오르반 총리에 의해 통과된다. 반소로스 법안에 따르면, '무슬림을 도와주는 자는 징역에 처하며 난민을 도운 자는 1년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빅토르 오르반(헝가리 총리)는 '무슬림은 생명을 위협을 피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침략자'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

## 2) 무슬림에 의한 성폭행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던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역 광장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1월 1일, 쾰른 경찰청장이 지난 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상하다.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갔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12월 31일, 쾰른 역에서 1,527건의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529건이 성폭행이었다. 용의자 153명이 잡혔는데 4명을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자와 난민들, 피해자는 16~20세 소녀들이었다.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제가 태권도 사범을 했다.이집트에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다. 타하루시(이집트의 집단 성폭력)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여성들이 태권도를 배운다.

영국 로더럼 시의 그루밍 범죄, 가해자 90% 파키스탄 무슬림이었다. "몇년 전에 Easy Meat이라는 책이 나왔다. '쉬운 먹이감'이란 말이다. 로더럼(Rotherham) 시 인구 25만 명(백인 92%, 파키스탄 3%) 중 가해자의 90% 이상이 파키스탄 무슬림이고 피해자 90% 이상이 13-15



유럽 내 무슬림 인구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 ©Pew Research

## 헝가리 반난민법 86%로 통과 단테의 신곡이 사라진 이탈리아 테오 반 고흐의 증손, 이슬람 비판 영화감독 피살

세의 백인소녀이다. 영국에서는 이제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그럼 아이들을 사회복지 시설에서 맡는다. 이렇게 자란 여학생들이 무슬림에 의한 그루밍(grooming) 범죄의 대상이 되곤한다."

## 3) 폭력적인 범죄

프랑스 이슬람 인구는 10%인데 평균 감옥의 50%가 무슬림, 이탈리아 무슬림 인구는 2%인데 평균 30%가 무슬림, 영국 켈브리지 주교도소 40% 무슬림, 영국 벨마쉬 주교도소 35% 무슬림이다.

1991년에는 영국 교도소에 무슬림이 1,957명 수감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무슬림 수감자가 11,68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2년 만에 596%증가한 것이다.

## 4) 마약

런던의 타워 햄릿(Tower Hamlets)의 자치구 경찰발표에 따르면 마약관련 혐의를 받은 사람의 50%가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마약복용으로 인한 범죄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흑인과 소수민족이 전체 수감자의 42%에 이른다.

## 5) 출입금지 지역 증가

타워 햄릿(Tower Hamlets)은 영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곳에 가면 '여기를 지나지 말라,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경고가 써 있다. 이런 곳을 출입금지 지역(No-Go Zone)이라고 한다. 영국의 여성이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다가

테러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 6) 영국의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이슬람 때문이었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영국 독립당 대표 나이젤 페라지(Nigel Farage) 공식적인 슬러건이 '무슬림들이 온다'(Muslims are coming)였다.

## 7) 여성 할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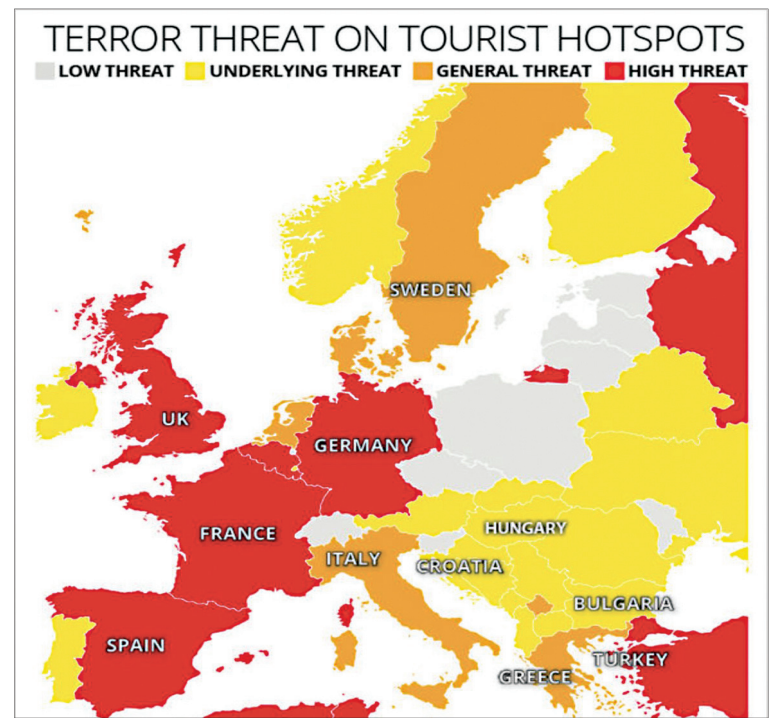
영국에서 1985년 법으로 금지했으나 10년 동안 영국에서 무슬림 여성 17만 명에게 할례가 실행됐다. 암스텔담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할례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이탈리아에서 단테의 신곡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신곡 지옥편 28장 9번째 지옥 구멍이에서 고통 받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자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동생 테오 반 고흐(Theo van Gogh)의 5대 증손자는 영화 감독인데 이슬람 여성들이 학대당하는 현실을 영화로 만들었다가 암스텔담에서 피살됐다.

## 9) 일부다처제 실행

꾸란 4장 3절은 무슬림들에게 일부다처제를 허용(무슬림의 5-10% 시행)한다. 영국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영국정부는 무슬



테러 위험 정도를 표시한 지도. ©영국 경찰청

림 이민자들의 일부다처를 인권차원에서 받아들이며, 한 남편에게 부인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2008년 2월 연금공단(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는 일부일처 외의 결혼을 승인하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프랑스에서도 수만 가구가 일부 다처제 실행하고 있다.

## 10) 극우주의의 부상

영국 국민당(BNF), 프랑스 국민전선(Front National), 독일 대안정당(AfD), 이탈리아 극우동맹(NcS), 헝가리 청년민주연맹(FIDESZ), 스웨덴 신민주당Ny Demokrati), 페기다(PEGIDA) 운동, 영국수호동맹(EDL)은 이슬람을 반대하며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고 이슬람 여성 신도의 하잡(머리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 의상)을 벗기고 욕설을 퍼붓는 반(反)이슬람주의 범죄가 평소보다 15배 증가했다.

그 결과로 유럽인들이 유럽을 떠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01년에 109,500명, 2005년에 144,800명이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떠나서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독일에서는 "독일이여 안녕!"(Goodbye Deutschland)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에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소말리아 출신으로서 네덜란드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얀 하르시(Ayaan Hirsi Ali)는 무슬림이었으나 이슬람 종교를 떠났다. 그녀는 "네덜란드는 예술의 국가다. 그러나 곧 네덜란드 인구의 60%는 이민자들로 채워질 것이며, 네덜란드의 문화는 파괴될 것이다."라고 했다.

아랍에 유명한 아라비아 상인과 낙타 우화가 있다. 상인이 텐트 안에 있는데 낙타가 춤다고 발 하나만 댕겨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가 앉아버리고 상인을 내쫓아버리는 이야기다. 그와 같은 일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어서 유해석 교수는 미국 이슬람 성장으로 초점을 옮겼다. 그는 미국 이슬람의 성장 원인으로 이민, 다산, 개종을 꼽았다. 그는 "현재 미국 전역에 600만에서 8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며 "뉴욕 인구 약 10%가 무슬림이다"라며, 미국인의 출생률(1.13%)에 비해, 무슬림의 출생률이 6.39%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미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로, 1. 이슬람은 공격적으로 전파 2.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교리 3.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욕구 4. 흑인들이 노예 제도에 대한 원한 5.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짐 크로우법으로 흑백 분리정책 6. 도시의 가난한 흑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기독교 7. 수피즘- 물질주의 과학주의에 대한 회의와 영적인 갈망을 꼽았다.

그는 미국 교회 수와 모스크 수를 비교하면서, 2020년 32만이던 교회가 2022년 30만으로 줄어든 데 비해 오히려 모스크는 2000년 1209개에서 2022년 사이 3,456개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유해석 교수는 이슬람 증가에 대해, 1)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2)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한다 3)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4)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5) 선교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계속)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 “단 30분 녹음으로,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 (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교일보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 “이란 기독교인 체포 급증... 성경 배포자 표적 삼아”

이란 당국이 성경 배포자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지난해 기독교인 체포가 급증했다. 체포된 사람들 중 3분의 1은 여러 권의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인권단체 아티클18(Article 18), 세계기독교연대(CSW), 오픈도어(Open Doors) 및 미들이스트컨선(Middle East Concern)은 18일(이하 현지시각) '2024년 공동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란 정권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아 체포, 벌금, 채찍질 등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체포된 기독교인 수가 2022년의 134명에 비해 2023년에는 166명으로 늘었다. 체포가 ‘파도’처럼 일어났다. 당국은 6월 이전까지 소수의 사람들을 체포했으나, 6월부터 3개월 동안 100명 이상 체포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체포가 더욱 급증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 자신의 사건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얼굴 없는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다. 2023년 말까지 여덟에 체포된 기독교인 중 최소 17명은 3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았거나 벌금, 태형 등 비구속 처벌을 받았고, 한 경우는 ‘국가에 대한 선전’ 혐의로 ‘무덤 파기’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란의 박해 감시 전문단체인 ‘아티클18’ 뉴스 담당자인 스티브 듀존스(Steve Dew-Jones)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2년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던 중 사망한 마사 아미니(Mahsa Amini)의 사망 기념일 몇 달 전부터 체포가 늘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듀존스는 “우리는 그것이 고의적이었다고 믿는다”며 “최근 감옥에서 풀려난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위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무자비하다”고 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의 ‘월드 와치 리스트’(WWL)에 따르면,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며, 가정교회 신자로 밝혀진 이들은 누구나 국가 안보 범죄로 기소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

르메니아 또는 아시리아 기독교인과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는 용인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들 역시 ‘2등 시민’으로 취급된다.

이 외에도 이란인들은 이란의 주언어인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읽는 것도,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아미니의 죽음 이후, 이란의 기독교인들 상황이 더 나빠졌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 연도의 박해 수치가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체포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체포 기록이 더 잘 문서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다. 듀존스는 “이란 정권이 교회에 점점 더 제한적인 통제를 가했던 2009년 후 박해 수준은 상당히 일관되게 유지됐다. 그 이후 기독교인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악화됐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보고서에서 강조된 추세 중 하나는 이란 당국이 성경 배포자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는 “조사 결과, 체포된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여러 권의 성경을 소유한 개인이었고, 당국이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수 년에 걸쳐 이 같은 사례 중 상당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만큼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계속해서 괴롭힘과 감시를 당했다고 보고한 기독교인의 수를 분석했는데, 한 목격자는 정보 요원이 자신의 집을 자주 감시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심문관으로부터 ‘괴로운’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경우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감시가 더욱 미묘할 수 있다”며 “몇몇 기독교인들은 심문 중 개인 이메일이나 기타 통신 내용의 양에 놀랐다고 증언했다. 이것들은 이후 그들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증거로 판사에게 제출됐다”고 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다른 형태의 차별에는 고용 거부, 새로운 혐의, 재개된 사건 등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이 이란에 머무르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커비 목사, 88세로 별세



고인이 된 헨리 블랙커비 목사. ©www.blackaby.net

베스트셀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Experiencing God)의 저자인 헨리 블랙커비 목사(Henry Blackaby)가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국제 블랙커비 미니스트리(Blackaby Ministries International, BMD)는 “그가 10일(이하 현지시각)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갔다”며 이 소식을 전했다.

그의 장례식은 오는 2월 25일 조지아주 존스버러 제일침례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아내 매릴린(Marilynn), 5명의 자녀, 14명의 손자가 있다.

BMI는 “블랙커비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왔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그는 엄청난 영적 유산을 남겼다”고 전했다. 블랙커비의 책을 출간해 온 라이프웨이(Lifeway)의

벤 만드렐(Ben Mandrell) 대표는 성명을 통해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또 지역교회 목사로 시작해 작가가 성경 교사로서 사역을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프웨이는 블랙커비라는 경건한 인물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며,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대표인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 목사는 “블랙커비는 훌륭한 성경 교사이자 작가”라면서 “그를 크게 그리워하겠지만, 그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1935년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사로 섬겼다. 그는 서스캐처원주 새스커툰에 있는 신앙침례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1990년 그의 영향력 있는 성경 연구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라이프웨이에서 처음 출판됐으며, 여러 판으로 약 800만 부가 판매했다.

2013년 9월 블랙커비는 애틀랜타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심장마비를 겪었고, 방향 감각을 잃어 거의 30시간 동안 실종됐다. 그는 사건 직후 성공적인 심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07:00  
3부예배(사-데)예배 오전 11:30 (화-토) 오전 6:00  
대학청년부/DM 오후 2:00 수요봉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란(2)새를 책임지며, 이란(가)를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교차)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4부 오후 1:00 영유아부, 유학생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새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리디오 방송학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리디오 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일예배 오후 7:30(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 오후 8:00  
영혼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유족들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쇼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족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학생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美 남침례교 ERLC 회장 “기독교 유권자, 좌우 진영논리 거리 뒤편”



2024년 2월 6일 DBU 글로벌 참여 연구소가 후원하는 베리타스 강연 시리즈에서 브랜드 리더우드 ERLC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Ken Camp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남침례교(SBC) 산하 단체인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회장이 기독교인들에게 극단적인 좌·우 정치 논리에 따르지 말 것을 강조했다.

미국 baptistpress(BP)에 따르면, 브랜드 리더우드 ERLC 회장은 지난 6일 DBU 글로벌 참여 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가 후원하는 베리타스 강연(Veritas Lecture) 시리즈에서 연설했다. 리더우드는 “우리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포착하고, 이해할 만한 올바른 범주의 정치신학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종종 기독교인들이 기본 원칙을 신중하게 고려하기보다, 최악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된 소셜 미디어에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기독교 시민인가, 아니면 공포에 떠는 추종자인가?”라며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지시하지만, 무엇이 두려움을 갖게 하며 누구를 따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리더우드는 “오늘날 불행하게도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 좌파와 우파의 극단주의자들이 이기적인 욕망에 호소하는 두려움을 조장한다”면서 “사람들은 두려울 때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을 찾는다. 그들은 즉,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권력이나 자신을 대신해 싸울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력을 찾는다”고 했다. 또한 “최종 결과는 좋은 것을 만들며 이웃들의 복지를 추구하거나, 더 나은 것을 남기려는 갈망이 아니다. 이것은 (대선 후보)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일 뿐”이라며 “인격이 아닌 결과가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부름 받은 것은 두려움에 기초한 사고가 아니”라며 “종교적 신념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정치 활동은 신앙적 의무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 정치 참여의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리더우드는 “우리의 기독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망명자로서의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따라 형성된다”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 ‘순례자’로 묘사하며, 이들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이며,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인이 “피상적인 시민 참여가 아니라, 심도 있고 신중한 투자를 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단순한 가치관 이상의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만일 여러분이 클릭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장담한다. 참된 기독교 시민권은 대체로 간과되고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대적인 노력처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리더우드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은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 예수의 주님 되심은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또는 2025년 1월에 대통령직을 맡게 될 다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기독교 시민은 국가 정치에 과도한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는 대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 美 기독교기업 칩필레, 2시간 만에 200만끼 구호 식량 지원



©Unsplash/ Levi Meir Clancy.

이번 달, 미국의 기독교 기업인 칩필레(Chick-fil-A)의 가맹점 점주 및 직원들이 연례 회의 기간 동안 2백만 개의 무료 식사를 단 2시간 만에 포장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인 칩필레는 지난 2월 5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신앙 기반 재난 구호 자선 단체인 ‘유에스헝거’(U.S. Hunger)와 ‘컨보이오브호프’(Convoy of Hope)와 협력하여 200만 개의 렌틸콩 잠발라야 식사를 포장했다. 컨보이오브호프 공식 대변인 이단 포헤츠(Ethan Forhetz)는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칩필레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칩필레와 같은 기업이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전했다. 컨보이오브호프와 칩필레에 따르면, 100만 개의 식사는 재난 생존자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전달되며, 나머지 100만 끼는 미국 전역의 도시와 시골 지역에 분배될 예정이다. 컨보이오브호프 기업 관계 수석 이사인 다니엘 번스(Daniel Burns)는 “기아와 식량 불안은 미국과 그 외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칩필레가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 전반에서 다른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USDA) 경제 연구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저소득층 지역은 식료품점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없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에스헝거의 사장 겸 CEO인 릭 휘티드(Rick Whitted)는 “우리는 칩필레와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칩필레는 미국 48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및 캐나다에 3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칩필레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연속으로 미국 소비자 만족 지수(ACSI)에서 전국 톱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강혜진 기자

###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에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제단: 매 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창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3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사랑을 베풀어가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신도구구부)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美 국무부, '성소수자 운동' 추진 위한 계획 발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페이스북

미국 국무부가 최근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 명령' 이행 방안에 '평등 및 평등 증진'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백악관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모두를 위한 기회를 증진하고 미국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3년 형평성 행동 계획을 개괄적으로 다룬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국무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은 매년 형평성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 국무부는 2023년 형평성 행동 계획을 통해 혐오와 맞서 싸우고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 추구, 인종적 형평성과 정의의 증진, 성소수자 보호, 동성애자 존중 증진,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증진, 성평등과 평등을 위한 권리 증진 등 5가지 글로벌 전략 초점 분야에 대한 행정 명령을 계속해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전략적 초점의 영역은 해외 지원, 외교 정책 개발 및 구현, 공공 외교, 영사 서비스, 조달, 계약 및 보조금에 있어 형평성과 포용성을 운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사적인 접근 방식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업무에 형평성을 접목하면 미국 국민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는 소외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인구가 직면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특정 소외된 인구에 대한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형평성 원칙'을 수행할 계획이다. 수행 책임자는 미국의 외교 활동을 이끌도록 임명된 고위 부서 관료다. 해당 문서에는 "이 전략은 여러 소외 계층의 개인이 경험하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포함해 특정 공동체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2023년 형평성 실행 계획은 '증오에 맞서 싸우고 포용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 대사관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대사관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서의 진행 상황을 강조했다.

2023년 자료표에 따르면, 바르샤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소수자 권리를 논의하고 성소수자 단체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관계자들과 회의를 조직했다.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과 관련해 관용의 중요성과 성소수자 공동체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김유진 기자

## “교회의 진보 기독교화, 주목해야 할 5가지 징후”

미국 CCM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인 도브상(Dove Awards) 수상자가 최근 '당신의 교회가 진보 기독교를 향해 가고 있다는 5가지 징후'라는 칼럼을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게재했다.

칼럼의 저자인 알리사 차일더(Alisa Childer)는 미국 CCM 록밴드 '조이걸'(ZOEgirl)의 전 멤버이며, 현재는 작가 및 연설가로 활동하며 기독교 블로그 '알리스차일더닷컴'(alischilders.com)을 운영하고 있다. 차일더는 "몇 년 전, 남편과 나는 지역의 복음주의 초교파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했다"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랑스럽고 진실한 사람들 사이에서 찾은 공동체 의식을 소중히 여겼고, 생각을 자극하고 통찰력 있는 설교로 교회를 이끌던, 지적이고 틀에 갇히지 않는 목사님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차일더는 "그 당시 나는 '진보 기독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 단어에 포함된 신앙적 다양성 때문에 실제로 진보 기독교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라며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징후들, 즉 특정 문구와 관념들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성경을 폄하하는 견해가 있다  
진보 기독교와 역사적 기독교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우리 삶에 권위를 가진다고 여겼다. 진보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버리고 성경적 명령보다 개인적인 신념을 강조한다.
2. 사실보다 감정이 중요시된다  
진보적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경험, 감정 및 의견을 객관적인 진실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사람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지가 신앙과 실천의 궁극적인 권위가 된다.

3.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진보주의 작가인 존 파블로비츠(John Pavlovitz)는 "(진보 기독교에는) 성우(sacred cow, 지나치게 신성화되어 비판과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관습 및 제도)가 없다...전통, 교리 및 교의는 결합이 있는 인류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두 허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4. 역사적 용어를 재정의한다  
성경적 영감, 무오성, 권위와 같은 교리를 긍정하는 진보적 기독교인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의미하도록 만들기 위해 언어적인 곡예를 해야 한다. 예전에 나는 목사님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믿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네, 물론이죠!"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영감받다(inspired)'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둘 다 같은 의미일 거라고 착각했다. 몇 달 후, 그는 성경이 다른 많은 기독교 서적, 노래 및 설교와 동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5. 복음의 핵심이 죄와 구원에서 사회 정의로 바뀐다  
성경이 우리에게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고 억압받는 이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중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되었으며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지이다.

김유진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말)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명(말-금) 06:00AM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최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이영년 오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성령회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OC예배  
수요성령회: 오후 7:30  
새벽기도 회: 금 오전 5:30 토 오전 6:00(200M)  
8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라세(Calling), 고지교(Hear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아기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말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유경태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말-토) 새벽 6:00  
(7175 W. 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joeunchurch.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b>5</b> <b>비타민 D3 5,000 IU</b> 120 캡슐을 함유 \$8.80	<b>6</b> <b>비타민 C500</b> 180 캡슐을 함유 \$11.99
<b>9</b> <b>면역력</b> 120 타블렛 \$11.99	

전화구매 213-434-1170

강훈 기자의 WeBridge 교회 탐방기

## 더 섬기는 교회 (The Serving Church)



더섬기는교회(김영일 목사)는 열정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이다. ©더섬기는교회

더섬기는교회(김영일 목사)는 한마디로 살아 있는 교회다. 더섬기는교회는 작지만, 힘 있게 섬기는 교회다. 더섬기는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은 대형교회 기도제목과 유사하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후원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돕고 섬기는 기도들로 가득하다. 더섬기는교회는 한국의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비전 트립은 유명하다. 더섬기는교회의 건강한 섬김 중의 하나다.

더섬기는교회 예배는 열정 가득하다. 은혜로운 찬양, 뜨거운 기도, 그리고 열정적인 말씀선포가 있다. 더섬기는교회에는 다수의 찬

양 사역자들이 함께 찬양을 인도한다. 아울러 다양한 기도프로그램으로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더섬기는교회의 기도는 뜨겁다.

김영일 목사는 서울과 북가주에서 힘찬 목회를 했다. 김영일 목사의 설교는 확신에 가득찬 설교다. 성경을 잘 풀어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전을 위한 적용도 아주 좋다.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면 당장 실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만큼 김영일 목사의 설교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김영일 목사는 수십년을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늘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을 유지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냈지만 한번도 꺾인 적이 없다.

김영일 목사의 삶에는 중꺾기(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막)이 있다. 남가주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코로나를 맞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했다.

더섬기는교회 김목사는 주일에 두 교회를 섬긴다. 더섬기는교회를 주일 오전에 섬기고 주일 오후에 아카시아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섬긴다. 황혼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국입성을 돕는 것은 김영일 목사 부부의 보람찬 사역이다. 그야말로 더섬기는교회 김영일 목사의 더 섬기는 사역이다.

더섬기는교회 성도들도 섬김에 익숙하다. 이웃을 돕는 일이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주일 식사를 준비한 집사님 부부의 섬김에 정성이 가득했다. 더섬기는교회는 그야말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더섬기는교회의 귀한 섬김이 남가주를 넘어 미국 그리고 세계로 뻗어 가기를 기도한다.

강훈 기자



김영일 목사는 주일 오후 아카시아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복음을 전한다.

## 예수사랑비전교회 박병구 목사 장례예배 2월 25일

예수사랑비전교회 협동목사로 섬기던 박병구 목사가 별세했다. 장례예배는 2월 25일(주일) 오후 3시 예수사랑비전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이종렬 목사가 맡는다.

고 박병구 목사는 미주대한신학교 출신으로 대신 남가주 노회에

서 임원으로 활동했고 올리브나무 교회, 한미 장로 교회 등에서 협동 목사와 원로 목사로 섬겨왔다.



안녕하세요!  
평안, 하시지요!  
고 박 병구 주모 예배/  
일시: 2024년 2월 25일(주일) 오후 3시,  
장소: 예수 사랑 비전교회 1236 So Hobart Bl, L.A., CA, 90006,  
설교: 이 종열 목사님



## 박종호 장로 초청 찬양집회, 한길교회서

간암으로 인한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삶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박종호 장로의 찬양집회가 2월 25일(주일) 오후 4시 한길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1986년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내가 영으로 대상을 수상한 후, 30년 넘게 찬양 사역자로 헌신해 왔다. <하나님의 은혜>, <시편 23편> 등 수많은 곡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박 장로는 2016년 간경화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찬양을 통해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 장로 초청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집회**



→1면 기사 <지난해 나이지리아서...>에 이어서

인토사이어티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며, 유엔 사무총장이 나이지리아 특사를 임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기독교인 공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의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WWL)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전 세계

에서 최소 4998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되었다. 이 중 약 90%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여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중 6위에 올랐다.

오픈도어는 팩트시트에서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풀라니 무장세력, 보코하람, ISWAP(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폭력이 증가해, 나이지리아가 교회를

겨냥하는 폭력의 원인이 됐다”라며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무장세력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23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슬람 극단주의 풀라니족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이 플라토 주의 기독교 마을들을 공격해 약 200명이 살해되고, 30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기쁨으로 읽는  : 마태복음, 제자 되기 (8)

# 나사렛 예수



김영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다볼 산에서 건너다보이는 언덕 위의 나사렛은 평온하고 한적하다. 그러나 막상 시내로 들어가면 시끌벅적하다. 고요나 명상과는 거리가 먼 도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통명스럽게 내뱉던 나다나엘의 말이 이해가 된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을 거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은 30여 년을 그곳에서 사시다가 48km 떨어진 갈릴리 호수 북단의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 마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한다.

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을까?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변방이다. 그래서 앗수르 같은 북방 나라로부터 대를

이어 고통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남쪽의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 차별을 당하고 변방의 고통을 대물림하는 어둠의 땅에 빛으로 찾아 오셨다. 피곤하고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큰 빛으로 오셨다. 멸시당하던 가버나움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두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취 주신다.

오래전에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감동이 깊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듬해, 1908년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William M. Baird) 부인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가 쓴 소설 같은 실화다. 베어드 선교사 부부는 1891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의 숭실대학교 전신인 숭실학당을 세웠다. 베어드 선교사 가족들은 모두 한국 땅에 묻혔고 가족의 기념비가 지금도 서울 양화진에 남아 있다.

그 책은 ‘보배’라고 불리는 열두 살 된 여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다. 소설의 형식을 빌렸지만 충분히 있음직한 이야기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배는 열두 살에 자기 부모가 미리 돈을 받은 집으로 열 살짜리 남편에게 시집가서 식모 노릇을 한다. 18세에 첫 딸을 낳은 지 여섯 달 후에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다. 그러자 시집 식구들은 돈을 받고 보배를 방만식이라고 하는 술꾼에게 팔아버렸다. 새끼줄로 결박당하여 종처럼 끌려가던 날 천연두를 앓고 있던 어린 딸마저도 죽고 만다. 방만식의 여중 같은 아내가 된 보배는 하루가 멀다고 몽둥이로 얻어 맞으며 살아간다. 그 집에는 방만식의 늙은 부모님과 사별한 전처의 소생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눈이 멀었다.

이야기 중에 심 씨라는 무당이 나온다. 사람 해골에 이슬을 받아다가 명약이라고 비싼 돈 받고 팔아먹으며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는 무당이다. 그리고 그 무당을 따라다니며 복을 쳐주는 사람, 고관수가 나온다. 고관수는 멀쩡한 눈을 뒤집어 흰 부분만 보이면서 앞 못보는 봉사라고 사람들을 속인다. 심 씨처럼 귀신이 내려 무당 노릇도 하고 돈을 벌고 싶었던 그는 굴에 들어가 36일을 굶어도 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안달을 한다.

가난을 음식 삼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팔자식을 팔아먹는 사람들, 천연두가 오면 자식들의 폐죽음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무당이 가장 무서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술 취한 남편에게 짐승처럼 얻어 맞으면서 사는 아내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기를 신령에게 비는 아내들, 남편을 죽일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 방법을 생각하며 깊은 강물을 쳐다보는 아내들, 그 아내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보배였다.

그런데 어느 날 보배가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다. 남편이 그녀를 묶어 놓고 몽둥이질질을 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보배를 때리는 일이 지겨워진 만식이 결국에는 아내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만식은 보배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떠나고 싶다면 남은 재산을 쪼개어 쓸 만한 집 한 칸을 마련해주겠소. 만일 떠나지 않고 남아준다면, (목이 댜 채로) 내 쪽 속하겠소. 절대 손찌검 안 하고 따뜻한 손길만 주겠소.”를 건축할 때 심 씨는 그 은반지를 내어놓는다. 칠혹같이 어둠던 그 마을에 큰 빛이 임하였다.

베어드 부인이 이 책을 쓴 지 110년이 되었다. 그때와 비교해볼 때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제 심 씨 같은 무당은 사라졌을까? 가정 폭력은 사라졌을까? 정말 그때보다 나아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망의 그늘을 벗어났는가? 아니다. 2천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어둠기만 하다.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학대한다. 무당과 점쟁이를 의지해야 살아가 정도로 자신감을 상실했다. 모두가 인생의 변두리를 맴돌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신다. 빛으로 찾아오신다. 누구에게나 그 빛이 필요하다.

##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 힘한 십자가 능력있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모세의 생애를 보면 참 특이한 대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의 자녀였던 그가 여왕의 아들이 되어 40년을 바로 궁정에서 지내며 “나는 모든것을 할 수 있다”고 호령치며 애굽 사회를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궁정에서 쫓겨나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는 자로 전락되면서 그 시대 삶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대

과업의 리더로 선택되었습니다. 말에 어눌하고 소극적이었던 그는 그 시대 삶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라는 고백이 이때 표현됩니다.

김장완 목사님은 모세의 이런 독특한 생애를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여왕의 아들이었다.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살았다. 궁정에서 교육받았으나 광야에 거했다. 목자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무한한 능력을 갖췄다. 바로로부터 망명한 자였으나 하늘의 사신이었다. 율법의 증여자였으나 은혜의 선구자였다. 모압에서 홀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장사 지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극명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기되고 있는 신학적 논쟁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 고린도 서신을 쓸 때 십자가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극명한 대조법을 사용해 표현한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서든 가스펠 작곡자요, 성어의 대표자인 윌리엄 게이더(William James Gaither 1936-)가 가사를 만들어 곡을 붙여서 1980년 찬송가로 발표하게 된 ‘십자가 능력있네(The old rugged cross made difference)’라는 곡입니다.

이 찬송은 윌리엄이 감리교 복음 전도자인 조지 버나드(George Bernard 1873- 1958)가 쓴 “갈보리 산 위에(The old rugged cross)”를 레퍼런스 삼아서 만든 곡입니다. 그가 곡을 쓰게 된 동기를 “낙담과 실망에 찬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였기에 나는 그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결의로 가사를 만들어 고백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찬양을 깊이 되새기며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십자가 고통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고통은 베일을 벗기고 방향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쫓는다” 라는 역설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수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1899-1981) 목사가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사도가 전파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올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새기며 그 복음으로 인한 진실의 깃발을 쫓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놀라운 대조, 즉 상심과 패배에 얽매인 삶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준 그 낡고 거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싶습니다.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홈쇼핑월드

## 새봄맛이 활짝핀 봄꽃세일!!

세일 기간 : 2024년 2.23(금) - 2.26(월)

### 바디프렌드 팔콘 로봇 마사지체어 독점계약체결 기념 가격파괴 세일!!

#### 바디프렌드 팔콘 로봇 마사지체어

~~\$9500.00~~

홈쇼핑월드  
특별세일가

**\$4490.00**

(일시불)

www.bodyfriend.com



### WOW 금주의 원가 및 원가이하 세일!!

#### 메뚜기쌀 누룽지

50g  
~~\$1.99~~  
**\$1.00** (1+1)



#### 고급 위생 비닐장갑

200매  
~~\$4.99~~  
**\$1.00**



\*1인 3세트 한정

#### 쌀농부 통보리가루

600g  
~~\$6.99~~  
**\$1.99**

원가이하세일!



#### 쌀농부 겉보리가루

700g  
~~\$6.99~~  
**\$1.99**



#### 고급 닥터 하우스 워팬

22cm  
~~\$24.99~~  
**\$4.99**

원가이하세일!



#### 고급 닥터 하우스 워팬

32cm  
~~\$49.99~~  
**\$9.99**

원가이하세일!



#### GNM 건강한 간 밀크시슬

30정  
~~\$34.99~~  
**\$9.99**



#### 동원 침향 공진단

30환  
~~\$129.00~~  
~~\$69.00~~  
**\$35.00**



\*1인 3박스 한정

#### 안동농협 고춧가루

500g  
~~\$49.99~~  
**\$49.99** (1+2)



#### 당뇨에 좋은 안심당 110

~~\$99.00~~  
~~\$69.00~~  
**\$49.00**



#### 동원 생명과학 연구소 일품 산삼배양근 진액

1개월분  
1박스: ~~\$99.00~~  
3박스: **\$99.00**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파크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뭉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구봉주 칼럼

대물림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 중에 유전학이라고 있습니다. 부모의 키, 성격, 병을 일으키는 인자 등등, 부모의 형질이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적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의 두뇌와 키, 체질은 거의 부모를 닮습니다.

성격도 자녀는 부모의 판박이입니다. 부모가 꼼꼼하고 치밀하면, 보통은 자녀도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을 갖습니다. 아주 간혹

돌연변이 같은 자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워대 조상들 가운데, 누군가의 유전자가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의 딸들을 보면, 정말 저와 생각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닮아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의 질병도 유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유전은 되지 않더라도 유전되어 발병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양쪽이 당뇨환자이면, 자녀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에게 고혈압이 있으면, 자녀도 일찍부터 고혈압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습관과 가치관도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학습적인 대물림입니다. 부모가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살면, 자녀는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대로 배워 자신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할 때, 건강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어, 여러가지 운동을 배웠고, 자녀들

에게도 휴가 때마다 트레일을 걷는 하이킹을 하는 것을 즐기도록 신경 썼습니다. 딸이라 처음에는 걷는 것을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딸들이 대학생 이상이 되니까, 그들도 산을 좋아하더군요. 저처럼 여행을 즐기고, 맛있는 것을 찾아 먹고, 좋은 곳이 있으면 구경가는 active한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생각이 건전하고, 시야와 사고가 넓은 자녀들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또한 부모의 신앙과 영적인 성품, 그리고 영성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물림인데, 영적인 대물림은 유전적인 대물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학습적, 경험적인 대물림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가정에 영적인 가치관과 습관 문화가 자리잡습니다. 전에는 다혈질이었다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기부인과 회개 가운데, 성품이 온화해 집니다. 그러면, 그의 유전 형질도 달라집니

다. 이상한 것은 4-5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에 자녀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매우 차분하고 온화합니다. 신앙적인 습관이 배여 있어,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당연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앙의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전하셨습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영적 가치관과 습관을 틈 날때마다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자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기분이 좋을 때, 맛있는 밥을 먹으며, 가장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음성으로 권면합니다. 결국, 영적 대물림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천국가기 전까지는 부모인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대물림, 잊지 마십시오.

강태광의 신앙 명사 산책 월드쉐어 USA

십자가 위에 - 도한호

십자가 위에 - 도한호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 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위 가운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러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 시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도한호 박사의 시입니다. 1939년생인 도한호 총장은 1962년부터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한호 시인은 1962년부터 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활발한 시작 활동(詩作 活動)을 했습니다. 1983년 '월간문학'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정식 등단하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외출>, <감격시대>, <좋은 시절> 등의 시집을 출판하며 시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다. 이런 공로로 그는 대전시문학상, 한남문인상 운문 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국제펜클럽에서 활동하였고 국제펜클럽대전기

부 회장을 지냈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꾸준한 시작 활동을 했고, <찬물에 대아여>, <나무를 심으며> 등등 수 권의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시인은 경북 경주에서 출생하여 경주와 목단 강성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경북 영주에서 소년 시절과 학창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한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했고,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미하여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미드-아메리카 침례신학대학원(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귀국하여 한국 침신대학교 교수로 오래 봉직했고 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교수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는 목적시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는 분명한 메시지 즉,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라는 뜻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곡해하고 십자가를 사사로운 욕심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타가 담겨 있습니다.

목적시에 반대되는 시가 순수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수시는 없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로 알려진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

출한 시인입니다. 그는 시의 목적은 고백이 아니라 설득이라고 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대하는 참된 태도에 대하여 설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연에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세태를 탄식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 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시인은 십자가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흥한 세태를 탄식합니다. 개탄스럽게도 이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용하는 불경스러운 행태를 보입니다.

2연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왜곡하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무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위 가운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2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적당하게 활용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무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고생스러운 삶을 미화하는 도구로 삼아 버립니다.

3연은 이 시를 읽는 독자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제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십자가를 왜곡하는 세태를 꾸중하는 시인은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러/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욕되게 하는 것이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은"에서 독자를 향한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

습니다. 독자에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강력한 존재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3연의 마지막 부분이 이 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어놓고 예수의 공로만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걸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 십자가에 걸려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도, 십자가에 제 자랑을 늘어놓은 사람도, 십자가 위에 학위 가운을 걸어 놓은 사람도, 십자가에 자기 고난을 걸어 놓은 사람도 모두 예수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엄히 책망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를 통해 이 세태를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준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 시인)

Advertisement for Nakwon Catering. Features large text '낙원 캐더링' and 'Outcall Wedding Consultation Custom-made Decoration Service'. Includes images of wedding buffets and tables. Lists services like '결혼피로연', '교회 행사', '생일 돌잔치 회갑연', '출장 즉석 갈비구이'. Contact info: 323-466-3737, 456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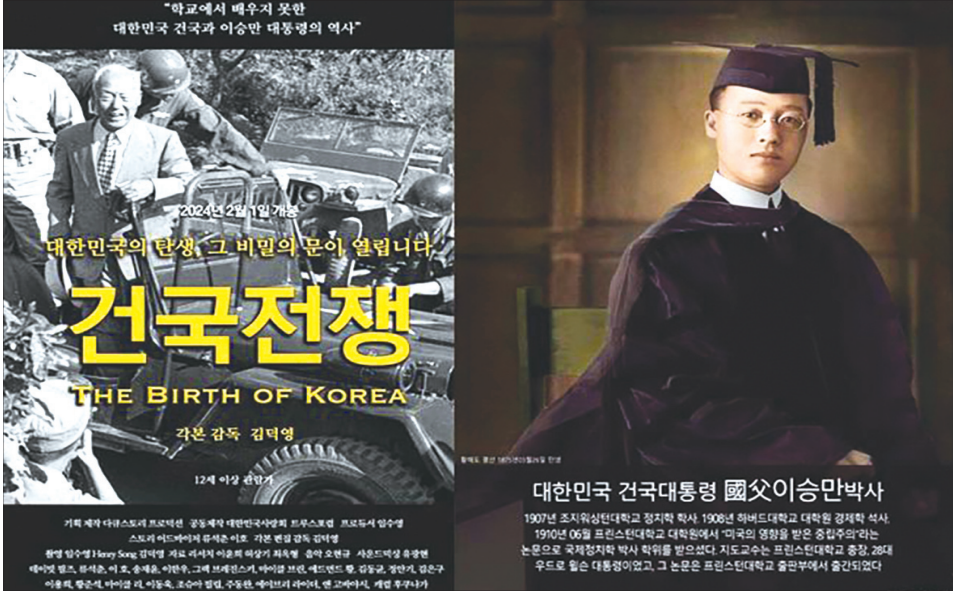
SEOUL MEDICAL GROUP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건국전쟁> (1)

# 영화 <건국전쟁>이 <서울의 봄>과 달랐던 점



(왼쪽부터) 영화 <건국전쟁> 포스터와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 시절을 복원한 초상화.

### 영화, 비교적 사실 근거로 우리 역사의 발전적 국면 조명 나서 진보 취향 영화들, 허위 사실로 보수 진영 정치인 절대악 묘사 <건국전쟁>, 피해의식 대신 변화와 개혁 기독교 방식 다뤄

◆이승만 재평가: 한국 미디어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실적 역사기술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 특히 그의 정치적 업적을 기리는 작품으로, 전반적으로 보수우파 진영의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반영하고 있다. 제작비 3억 원의 저예산 독립영화로서는 흔치 않은 흥행세를 보이는 작품이다.

손익분기점은 약 12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2월 중순경 제작비 20배에 근접한 5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개봉된 독립영화들 가운데 최고 성적을 기록한 작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극장가에서 큰 흥행 성공을 거뒀던 <서울의 봄>과 마찬가지로, <건국전쟁>에 대한 평가 역시 정치 성향을 따라 극적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인다. 보수 정치인과 언론인, 평론가, 그리고 기독교계 인사들은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나 미디어가 보여주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공로를 올바르게 조명하는 작품이라 호평하고 있다. 반면 진보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은 이 영화가 우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개봉된 작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반응은 예상 외의 측면이 있다.

당장 <서울의 봄>을 비롯해 그동안 1천만 관객을 넘긴 여러 편의 진보 취향 영화들(<변호인>, <택시운전사> 등)에 비한다면, <건국전쟁>의 흥행성적은 독립영화치고는 선전했지만 전체적인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 영향력이나 축적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관람 관객층도 주로 40-50대가 주를 이룬다. <서울의 봄>이 청년 세대에까지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하면, <건국전쟁>은 여러 모로 대중의 호응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최근 영화계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진보 이념이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내 영화·미디어 업계에서 드물게 보수 성향 역사관을 표방하고, 현재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기 위해 고투를 벌였던 한 거물 정치인의 업적을 비교적 사실에 근접하게 조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덕영 감독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 영화는 국내 미디어 업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단아 같은 작품이다. 이 작품이 나름 유의미한 흥행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진보 진영 인사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이 불쾌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보수 진영도 미디어를 이용한 프로파간다에 조금씩 능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원래 미디어를 통한 역사 왜곡과 정치 선동은 전통적으로 공산·좌파·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의 전매특허와 같은 것이었다.

공산주의 정치 이념이 태동하던 시기인 19세기 후반, 이 급진적 이념의 선구자들은 제대로 된 정치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 당시 이 새로운 정치 이념의 지지자들을 살펴보면, 소수의 혁명적 지식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도시 빈민, 저임금 노동자, 빈민 소작농들이었다. 이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 주도권을 갖지 못한 이들이었다.

◆이승만 재조명: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피해의식을 극복한 정치인의 일생

그러나 문화계는 사정이 달랐다. 문화계는 기본적으로 특정 문화 조류를 향유하는 이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국가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향유하는 문화가 서민들에게 열화된 형태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 빈민들이 널리 향유하는 문화가 고급화·전문화돼 사회 상층부로 전파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경향은 특히 '대중문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된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문화발전 메커니즘이다. 국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시와 농촌의 서민과 빈민들이 공산주의에 열광하면서, 문화계는 자연스럽게 진보좌파 이념이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좌우 이념갈등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 현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영 수장을 맡고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미디어 업계에서는 진보좌파 이념이 뚜렷한 강세를 보인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런 미디어 업계의 전통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작품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환호를 받고 진보 진영에서는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선전선동 전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다름아니라 역시 미디어를 통한 변증과 사실적시라는 것을 이 영화는 입증하고 있다.

<건국전쟁>의 내용 가운데는 분명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한 요소들도 있다.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를 서술하다 보니, 그가 범한 실책들은 대부분 가려지고 있다. 이 점은 적절한 역사인식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영화가 조명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경제적·사상적 업적이 결코 허위로 조작된 것들은 아니다.

사실 이 점에서 이 영화는 큰 흥행 성공을 거둔 대부분의 진보 진영 취향 영화보다 뛰어나다. 우파나 좌파 미디어 제작자 모두 역사적 인물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성공적으로 보호, 전파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삶의 개선을 가져온 이들을 어느 정도 미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콘텐츠의 상업적 성공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건국전쟁>이 그동안 제작된 많은 진보 진영 취향 영화들과 차별되는 점은 적어도 허위사실에 기대 극의 서사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 <서울의 봄>을 예로 들면, 진보 취향 미디어 콘텐츠는 그들의 이념을 거부하는 이들을 절대악으로 꾸며내는 데 거리낌이 없다.

<변호인>, <택시운전사>, <서울의 봄> 등에서 묘사된 보수 정치인이나 공무원, 군인들은 묘사된 내용 자체만 보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분류될 만하다. 반면 <건국전쟁>은 이런 이념적 피해의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그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의 진취적인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립한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조선 왕실 후손이자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 출신이었지만, 젊은 시절 배재학당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 그리고 개화의 가치를 배웠다. 또 온갖 과오로 얼룩진 과거가 아니라 변화된 미래를 향해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배웠다.

기독교적 실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악과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송고한 계명을 받들어 선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변화이다. 이런 기독교적 사고의 전환은 청년 이승만에게 조선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기독교와 외세에 대한 굳건한 피해의식, 이른바 '한(恨)의 정서'라는 말로 포장된 피해의식을 극복할 힘을 주었다.

이승만 역시 깊은 피해의식에 잠식돼 세상을 증오할 만한 이유가 여럿 있었다. 그는 독립협회 활동으로 체포돼 한성감옥에서 사형수로 5년 이상 수감된 적 있고, 일제의 탄압으로 기약없는 망명생활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김일성의 야욕으로 자신이 책임진 국가의 분단과 참혹한 침략전쟁을 경험해야 했다. 게다가 맹방인 미국 트루먼·아이젠하워 정부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계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이승만을 경계하고 견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의 원한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도록 한 것은 배재학당에서 받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 미국 대학에서 받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적 훈련, 그리고 일제에 대한 독립투쟁 과정에서 깊어진 한국인들을 향한 동료의식이었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처럼 삶을 복고적이라 못해 미개한 지경까지 끌고 내려가던 조선의 구습에서 벗어나, 당시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발전된 인권 및 정치의식을 배워, 이제 막 건국한 대한민국을 전쟁과 빈곤과 전근대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만든 탁월한 정치지도자의 밝은 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로써 <건국전쟁>은 피해의식과 허위사실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비교적 사실에 근거해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이 점이 우파와 좌파 진영 모두에서 서로 다른 의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속>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쌍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진석호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영혼)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보화를 찾는 기쁨의 시간으로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보화를 추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6월 27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9:00
- 장소 : 주찬양교회 (2525 W. 8th St., #205., LA, CA 90057)
- 문의 : T.(213)434-9191 진석호 목사 (sukhoj@gmail.com)  
(누구나 참석 가능. 회비 없음)

**주찬양교회**

# SD 연합장로교회 50주년 “새로운 50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길”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강용훈 목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항중앙교회의 손병렬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하며 지난 50년의 의미를 묵상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손병렬 목사는 지난 2월 16일(금)부터 18일(주일)까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총 4번의 집회를 인도했다.

손 목사는 마지막 집회가 열린 18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서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요 20:19-23)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메시지 '평안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를 통해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본문에 부활하신 후에 주신 3가지 메시지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번째 메시지는 '평안이 있을지어다'이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사람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 세상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로 불안해 한다. 연약한 나를 보면 두렵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하라고 하신다.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이며 예배를 통해 평안을 맞보아야 한다. 교회에 와서 서로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강용훈 목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항중앙교회의 손병렬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 Youtube screen shot

**고아였던 도미노 피자 창업자를 울린 한 마디**  
**“나는 네가 왜 아파하는지 안다. 육신의 아버지는 널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평안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다'라며,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 토마스 마나한의 예화를 언급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버림 받고 고아로 상처 속에 살았고 매일 고아원에서 싸움질을 하며 모든 기물을 망가트렸다. 어느날 그가 싸우

고 돌아왔다. 모두 실망했지만, 미세스 베라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가 왜 아파하는지 안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예수님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의 품에 안겨 평평 울었다. 그의 자리에서 이렇게 썼다. '하나

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그는 새로운 꿈을 달라고 기도했고 미시간 대학에 들어갔다. 공부하면서 일을 했다.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팔았다. 3년 후 피자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건강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그 가게를 물려주었다. 그 피자가게가 도미노 피자. 토마스 마나한 미국의 부자가 되었다. 일년에 3천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지난 50년 그렇게 사랑했다.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50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나누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에드워드 풀이라는 사람이 맨해튼에 출장을 갔다. 회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다. 동료들과 택시를 기다리다, 택시가 도착했다. 택시를 타러 급하게 가다가 과일을 팔던 가판대를 부딪혔고 땅 바닥에 과일이 다 쏟아졌다. 친구들에게 먼저 타고 가라고 하고 과일을 줌기 시작했다. 그것을 줌고 있는데 그 주인은 할머니였

고 시각장애인이었다. 그것을 다 주워 드리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드렸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를 안고서 말했다.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아니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제가 앞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일 과일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당신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했다. 풀은 다시 얘기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날 풀은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선교해야 한다. 100년을 향해 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

손 목사는 LA나성영락교회 부목사 및 찬양 사역자로 강용훈 목사와 함께 사역했으며, 이후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10년간 목회(2004.1.-2014.7.)하다 2014년 포항중앙교회로 청빙됐다.

▶주소:8081 Mira Mesa Blvd, SD CA 92126 ▶문의:(619)223-9999, 주디 한 기자

## 유산 상속에 관한 전문가 초빙 무료 세미나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을 초청한 무료 유산상속 세미나가 내달 10일(주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열린다.

15만불 이상의 집 혹은 재산을 갖고 있다면 유산상속 법정을 통

해 상속받아야 하고, 자선단체에 유산을 남길 경우 이 금액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도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부

과된다는 사실 등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가 대처가 늦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은혜법률 및 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 장로)에서는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분쟁, 후견인 등 유산 상속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 세 명을 초빙해 세미나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강사로는 현 뉴욕라이프 상속법 고문 변호사, 구 LA 영사관 고문 변호사,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최재홍 변호사(상속법), 현 Bae Park & Nazdjanova, PLC, 파트너 변호사, 구 Yocca Patch & Yocca,

LLP 소속 변호사, HJCAmerica, INC 사내 변호사인 배영호 변호사(상속법) 그리고 상법, 민사 소송, 사기, 계약위반, 파트너십 분쟁, 비즈니스 구매 및 매매, 리스 문제, 주식회사 설립, 상속을 다루는 이원석 변호사다.

문의: 이항복 집사 (213-369-0921), 목경은 집사 (562-505-2528), 김민선 기자

# 설교 및 교회 행정학 세미나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

이번 세미나는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 실천신학과 행정학 측면에서 접근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이번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와 전도사님들을 초대합니다.



한기부 이사장  
송일현 목사



한기부 LA지부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주제: 설교 및 교회 행정학**

**날짜: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30**

- 강사 : 송일현 목사(한기부 이사장), 고귀남 목사(한기부 LA지부 대표회장)
- 대상 : 목회자 및 전도사
- 신청마감 : 2024년 3월 2일(토)까지(식사 제공)
- 문의 : 310-706-7721(진건호 목사), 213-820-0003(고귀남 목사)
- 장소 : 멜리데 교회(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주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상임회장 진건호 목사

# 2024 중·고자녀를 위한 정체성 회복 여름캠프

## 부모가 꼭 권하고싶은 기독교육캠프

**기간** : 2024년 6월 17일(월)~7월 12일(금)까지

**장소** : 한국 충남 논산 소재 벨국제아카데미

**대상** : 미주 한인 2세 자녀들(\$1,700/1인)

### 캠/프/내/용

1. 크리스천/나의 정체성교육
2. 한국인과문화 정체성교육
3.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



**상세안내**는 기드온동족선교 홈페이지와 쿼알코드 검색



- 등록신청 :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 벨국제아카데미 : <http://bellschool.or.kr>



문의 : T.(425)775-7477    [gideonbrothers100@gmail.com](mailto:gideonbrothers100@gmail.com)  
 협찬 : 미주기독교일보